

국산차 역차별 없앤다...내달 1일부터 세금 부과 기준 18% ↓

국세청,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 4200만원 자동차 구입하면 54만원 절감

내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진다. 공장 출고가 4200만원 차량의 경우 개별 소비세율 5% 적용 시 54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내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진다고 7일 밝혔다.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기

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돼 관련 세금이 줄어들어 소비자 판매 가격도 내려가게 될 전망이다.

내달부터 제조사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 제조장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반출가격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이하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현대 그랜저(4200만원)는 54만원, 기아 쏘렌토(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절감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

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제조사와 판매자가 동일한 500만원 이상 고급 가구와 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6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내달 1일부터 3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변용일기자

동서식품, '카누 원두커피' 6종 출시



동서식품은 프리미엄 원두 본연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카누 원두커피' 6종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신제품 6종은 'FIRST BOLD, LAST CLEAN(풍부한 첫 느낌, 깔끔한 여운)'이라는 콘셉트로 입안 가득 퍼지는 풍부한 향과 진한 풍미와 목 넘김 후에 느껴지는 깔끔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프리미엄 원두를

사용하고 각 원두마다 최적의 로스팅 프로파일을 적용해 고유의 풍미와 개성을 극대화했다.

신제품은 ▲카누 실키 베이지 ▲카누 크림미 버건디 ▲카누 벨벳 블랙 등 3가지 플레이버를 각각 분쇄 원두(Ground Coffee)와 홀빈(Whole Bean: 분쇄하지 않은 원두) 2가지 타입으로 선보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카누 실키 베이지'는 원두를 라이트 로스팅해 과일류에서 느껴지는 매력적인 산미가 특징이다.

'카누 크림미 버건디'는 미디엄 로스트 원두로 견과류의 진하고 고소한 풍미와 적당한 산미를 느낄 수 있고, '카누 벨벳 블랙'은 다크 로스트 원두의 묵직한 무게감 속에 스모키한 향과 달콤쌉사름한 풍미를 경험할 수 있다.

제품 타입에 따라 에스프레소 방식이나 핸드드립, 콜드브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각 원두의 특징이 명확하면서도 풍부한 첫 맛과 깔끔한 여운을 갖춰 원두커피 입문자부터 애호가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한국타이어, 8월까지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에보' 특별 혜택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는 8월 31일까지 타이어 중심의 자동차 종합서비스 전문점

아이온 아이셉트 3+1 쿠폰 및 콜맨 캠핑용품 등 제공

'티스테이션(T'Station)'과 '더타이어샵(THE TIRE SHOP)',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티스테이션닷컴'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아이온 에보(ION EVO) 론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아이온 에보와 아이온 에보 SUV는 지난 5월 국내에 새롭게 출시한 고성능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 행사 기간동안 아이온 에보 또는 아이온 에보 SUV 제품 4개 구매 고객에게 전기차 충전 서비스 채비(CHAEVI)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행사 제품 구매 고객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충전 이용권을 전달받아 채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이용권 번호를 입력하면 100kWh 용량의 전기차 충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용권 등록 기간은 9월 30일까지며 사용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개월이다.

또 행사 제품 구매 시 콜맨 캠핑용품도 증정한다. 캠핑용품 5종 중 1종을 선택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달되는 구급품 신청서를 제

출하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프로모션에 참여한 고객은 한국타이어 전기차 전용 겨울용 제품 '아이온 아이셉트(ION i*cept)' 재구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행사 제품 구매 고객 전원에게 발급되는 '아이온 아이셉트 3+1 쿠폰'을 활용하면 아이온 아이셉트 제품 4개 교체 시 타이어 1개는 무상으로 장착할 수 있다. 쿠폰은 오는 9월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한국타이어는 7일 오후 7시 네이버 쇼퍼라이브 채널을 통해 '아이온(ION) 라이브커머스'를 진행, 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도 ▲전기차 충전권 ▲콜맨 캠핑용품 ▲아이온 아이셉트 3+1쿠폰 등 경품 혜택을 제공한다.

프로모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타이어 고객센터, 티스테이션닷컴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슬비기자

CJ온스타일 "무더위, 여름 침구로 해결"

CJ온스타일은 '썸머 침구 페스타' 행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른 더위와 전기료 인상 부담 등을 고려해 냉방 소재 침구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수요 대응 성격의 판매 행사다.

우선 이날 '엡센셜 자카드 풍기인건 침구'를 시작으로 행사를 시작한다. 취향을 타지 않는 디자인과 풍기인건 소재를 적용한 제품이다.

또 '엡센셜 스프레드 3중 세트' 상품 판매 방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15일 오전 10시25분엔 TV홈쇼핑을 통해 성수동 팝업 매장과 이원 생방송을 한다.

오는 9일과 14일엔 '파르페 바이(by) 알레르망 쿨링 침구'를 판다. 지난해 제품에서 개선됐고, 수분을 흡수해 잠마찰에 유용하다.

아울러 21일엔 '룸메이트 바이 알레르망 알라지케어 양모패드'를 최화정소에서 판다. 방송 중에만 원 플러스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외 오는 14일까지 5만원 이상 구매하면 10% 적립금을 준다. 행사 기간 방송 중 구매자



를 추천해 3명에게 삼성 무풍에어컨을 경품으로 준다.

뉴시스

LG생진, '라인프렌즈 에코 에디션' 4종 출시



LG생활건강의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빌리프'는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IPX와 협업한 '빌리프 라인프렌즈 에코 에디션' 4종을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 출시를 IPX가 전개하고 있는 '브라운 온 그린(BROWN ON GREEN)' 캠페인에 빌리프가 참여하며 성사됐다. '브라운 온 그린'은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친숙하게 전달하고 친환경을 지향하는 기업들과의 상품 기획

협업을 통해 가치 소비를 실천하려는 캠페인이다.

빌리프는 수분 에센스, 수분 크림, 나이트 마스크, 선크림 등 브랜드 베스트셀러 4종의 포장재를 재생 용지 소재의 크라프트팩으로 제작했다. 패키지 디자인에는 올해 캠페인 아트웍을 적용했다.

특히, 제품 용기 부착 등 다양도로 활용이 가능한 라인프렌즈 다이어와이(DIY) 스티커를 전 제품에 포함해 소장가치를 높였으며, 프로모션을 통해 종이 섬유 소재인 타이벡으로 만든 파우치를 증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 제품인 '뉴메로 10 에센스 점보 세트'는 세안 직후 잘나에 사라지는 피부 수분을 지켜주는 옥실 에센스로 200ml 대용량 본품이 내장돼 넉넉하게 사용하기에 좋다.

뉴시스

전기사용 줄이면 내달부터 캐시백 kWh당 최대 100원 추가

1kWh당 30~70원 차등지급, 익월 전기요금에서 차감

다음달부터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기존에 받던 에너지캐시백 액수에서 1kWh당 최대 1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커진 가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에너지캐시백을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한전은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해왔다.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을 지급해왔는데, 다음달부터는 기존에 지급하던 에너지캐시백 액수에 최대 100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절감량 1kW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해 최대 1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과거 2개년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 대비 절감률을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에 한전 15개 지역본부 기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 절감률 이상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1kWh당 30원 기본 캐시백이 지급된다.

다음달에 사용하는 전기 절감량부터 기본 캐시백과 과거 2개년 동일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수준에 따라 1kWh당 30~70원 차등캐시백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오는 2024년부터 절감률 수준에 따라 1kWh당 30~50원으로

조정된다.

에너지캐시백은 기존에 현금과 기부, 전기요금차감 중 고객이 선택한 방식으로 받기 단위로 지급됐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난 상반기까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반기 단위 지급은 고객의 전기 소비절약 노력에 대한 피드백이 느려 절감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다음달부터 절감 익월에 바로 보상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2년 동일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이상 줄이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철인 7~8월 4인 가구의 2개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247kWh로, 월 6만 669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했다.

올해 여름철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427kWh의 전기를 사용하면 지난해 3분기 이후 요금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요금은 8만5300원을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지난해 대비 1만 384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만약 해당 가구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고 사용량을 10% 줄이면 캐시백 3900원과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액 1만180원을 포함하면 1만5080원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최종적으로 6만 545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000원을 덜 내

게 된다.

만약 사용량 86kWh를 줄여 20%를 절감하면 캐시백 9770원에 요금감소 2만2360원, 총 3만2130원의 부담이 줄어들어 전기요금 4만8400원이 청구된다. 캐시백 최대 지급한도인 30%까지 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 1만 4660원과 요금감소액 3만4100원을 합한 4만8760원으로,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약 52% 감소한 3만1770원이 된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 확대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다음달 분에 한해서 이달에 미리 점수를 받는다.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와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한전 지사 방문 신청이 가능해지는 다음달 전까지만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통신중계기나 소형점포, 창고 등의 주택용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에 수령하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하거나 모바일 앱 한전:ON, 한전 고객센터(123)에 문의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가까운 한전 사업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슬비기자

세븐일레븐 "제주 속성도 레스토랑 음식을 편의점에서"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제주 흑돼지 음식점 속성도와 협업한 레스토랑 간편식(RMR) 상품을 낸다고 7일 밝혔다.

모두 5종으로, 삼각김밥·김밥·열무국수 상품이 먼저 나온다. 이어 14일엔 도시락과 버거 상품이 2차로 출시된다.

우선 삼각김밥은 '속성도더커진고깃집볶음 밥삼각김밥'으로 삼겹살을 먹고 난 뒤 2차로 먹는 볶음밥을 재현해 낸 상품이다.

김밥 상품은 '삼겹살삼겹김밥'으로 고기쌈을 구현했고, 여름 별미 성격인 열무국수는 '속성

도동치미열무국수'란 이름으로 출시했다.

오는 14일 나오는 도시락 상품은 '속성도고기구이&김치찌개한상도시락'으로 찜계·고기구이·제주소스 멜트 소스를 담았다.

버거 상품은 '속성도등심돈까스버거'엔 등심 버거에 양배추 샐러드와 피클, 참깨 돈까스소스·달콤한마요소스가 들어가 있다.

가격은 상품별로 삼각김밥 1600원, 김밥 3200원, 열무국수 4800원, 도시락 6000원, 버거 38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번 출시를 세븐일레븐과 속성도가 협업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두 업체는 속성도하이볼 2종을 협업 상품으로 내놓았던 바 있다.